Ⅱ.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사례

1. 공적자금 지원과 보험사업 매각

■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금융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험산업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컸었던 것으로 나타남.

- ROA나 ROE로 평가한 금융산업 수익성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상업은행과 보험업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들어서는 상업은행보다 보험업 수익성[1]이 더 악화됨(〈부록 표 Ⅰ-2〉 참조).

■ RBS, ING, Dexia, KBC 등이 공적자금[2]을 지원받게 된 원인은 단기자금 중심의 자금조달로 인해 위기 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또는 투자부문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임.

- RBS의 경우 ABN ARMO 인수 후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대출과 거액대출 등 고위험 은행사업에 집중함에 따라 유동성 문제가 야기됨.
  - 보험사업이 부실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복합금융그룹임.

---

1) Morgan Stanley Capital Index에 포함된 상업은행, 보험회사의 평균 수익성.
2) 유럽에서 공적자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부채상환보증(Debt Guarantee Scheme), 자본투입(Re-Capitalization), 부실자산지원(Support for Bad Asset Schemes), 유동성 지원(Liquidity Support)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 공적자금은 자본투입을 의미함.

- ING는 보험업과 은행의 투자손실 확대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인데, 보험업 손실이 5억 7,000만 유로로 은행 손실 2억 유로를 크게 초과하였음.
- Dexia는 미국 지방정부채권 발행과 관련한 신용보강사업(Bond Insurance)이 부실화되면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
- KBC 부실 원인은 투자은행의 CDO/ABS 투자손실, 상업은행의 PIIGs 대출손실 등임.

2. HSBC의 보험사업 매각[3)]

■ HSBC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충격을 받았으나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52건의 사업 매각[4)]을 발표·추진하는 등 자발적으로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영국, 아일랜드 및 아시아 지역 보험사업 매각도 진행하고 있음(〈부록 표 Ⅰ-3〉 참조).

- HSBC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손해보험사업을 각각 Syndicate Holdings와 Catalina Holdings에 매각하였고, 프랑스의 손해보험사업 역시 매각을 계획하고 있음.
- HSBC는 2012년 3월 아시아와 남미지역의 손해보험 사업을 프랑스의 AXA, 호주의 QBE에 현금(9억 1,400만 달러)으로 매각하였음.

---

3) HSBC(2013. 5), "Investors Update Presentation".
4) ① 전략의 연계성, ② 지역의 경제발전, ③ 사업의 수익성, ④ 효율성, ⑤ 유동성, ⑥ global risk standards 등의 기준에 따라 '투자', '개선', '현 상태 유지', '철수' 등으로 결정되었음. 52개 사업 철수가 완료될 경우 950억 달러의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2년 그룹 위험가중자산 1조 1,290억 달러의 8% 수준임.

- 중국, 홍콩, 대만 및 베트남에서는 생명보험사업을 매각하였음.

■ 그런데 HSBC가 AXA와 QBE에 매각한 보험사업의 경우 매각 가격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이들 지역에서 보험상품이 HSBC를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합의했기 때문임.

- AXA는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의 HSBC 손해보험 사업을 4억 9,400만 달러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2011년 말 기준 순자산가치 4,800만 달러의 10배에 이르는 수준임.
  - AXA는 이들 지역에서 HSBC를 독점적으로 활용하여 손해보험 상품을 공급할 예정임.
- QBE도 순자산가치 1억 8,900만 달러의 HSBC의 아르헨티나 손해보험 사업을 4억 2,000만 달러에 매수하였음.
  - QBE도 AXA와 유사하게 손해보험 상품을 아르헨티나에서 판매할 때 HSBC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보험사업 매각 이외에도 HSBC의 보험사업 전략 변화가 관측되고 있음.

- HSBC는 보험사업을 소매은행/자산관리 사업부에 배치하여 자산관리, 재무계획(Financial Planning)과 함께 수수료 중심의 사업으로 범위를 규정하였음.